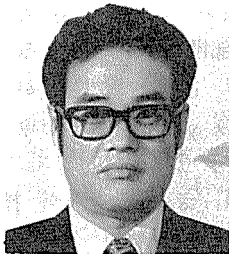


國內 Data 通信의 開發 普及 展望



柳 京 熙

韓國데이터통신(株) 研究委員

해외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데이터통신의 활용도 극히 드문 상태에 처해 있다. 앞으로 통신망의 확장, 데이터 베이스 및 부가가치서비스의 확장, 뉴미디어의 과감한 도입, 일반생활인의 정보생산 및 이용습관의 개혁 등의 실현이 복지사회 구현의 첩경이 될 것이다.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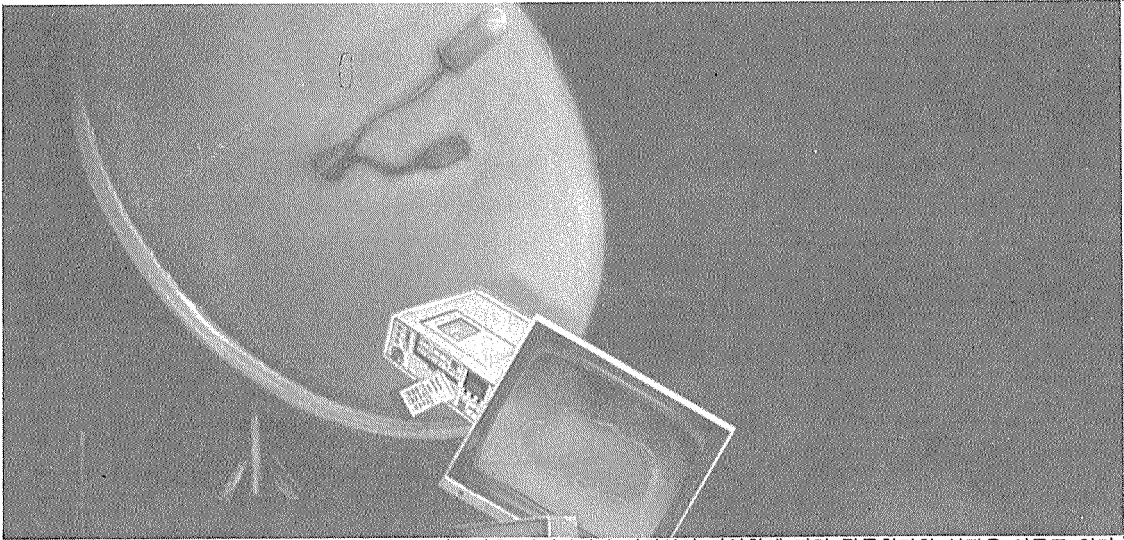
국내에서의 데이터 통신의 역사는 그대로 컴퓨터 역사와 거의 일치할 만큼 역사가 긴 셈이다. 그러나 모두가 데이터를 Point to point 방식의 데이터 전용선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어 온 셈이다. 데이터 통신사업의 증가는 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고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증가도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팔복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도표 1 참조)

그러나 어떤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어디서나 단말기만 있으면 어떠한 호스트 컴퓨터라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른바 「공중데이터통신망」이 국내에 만들어진 역사는 불과 3년이다. 한국데이터통신(주)는 1982년에 설립한 이래로 Dacom Net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직도 이 망은 해마다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공중망의 보급여하가 사실상 데이터 통신의 현황을 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이다. 먼저 이 망을 도표 2와 같이 나타내어 본다. 수요에 따른 망의 확장이라는 개념보다도 먼저 기반구조를 다져두고 수요를 유도, 발생시키는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의 온라인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몇가지 보완점만 이룬다면 우리나라의 정보산업도 그 앞날이 환하게 트일 것으로 보인다.

2. 해외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 현황

아직도 우리나라는 해외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국내 정보이용을 위한 데이터 통신의 활용이 극히 드문 상태이므로 데이콤망의 가입자들 초기에는 주로 해외 데이터 뱅크 활용을 주로 하였었다. 이들중 현재 데이콤이 국내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은행은 미국의 Dialog,프



데이터통신산업은 경제발전과 사회상의 다양화에 따라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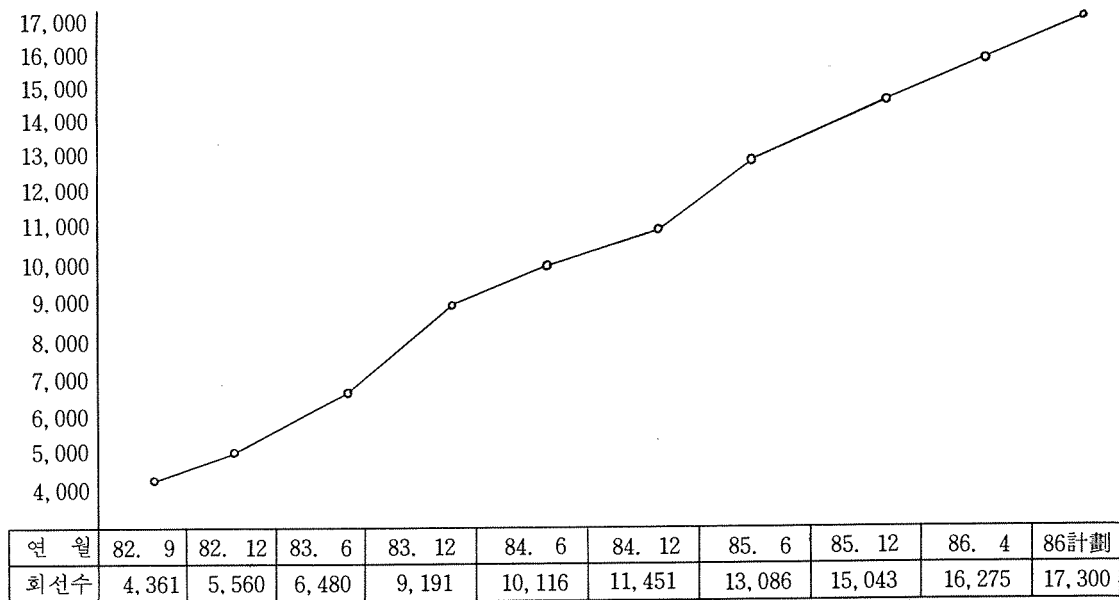
랑스의 Questel 및 GSI-ECO, 일본의 JOIS 등 인데 이들의 이용자 총수가 현재 250가입자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증가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총 700가입자중 그밖의 이용자들은 이밖

에도 다른 정보은행이나 또는 다른 RCS(원거리 정보처리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하여 쓰는 경우이다.

한편, 연합통신이 보급하고 있는 미국의 AP

도표 1 데이터 전용선의 연도별 증가

○特定通信回線 加入者 現況



Telerate, 영국의 Reutor Monitors 등과 같은 금융정보 서비스도 그 가입자가 각각 40기관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데이콤

망을 경유한 해외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도 5~6개 기관이 있다.

또한, 전자사서함(Electronic Mail) 서비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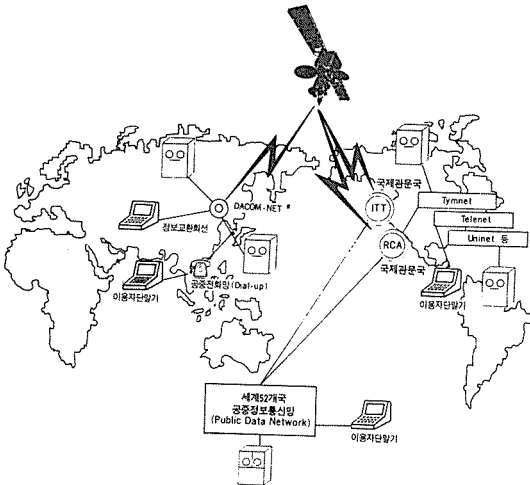
이용자도 상당수가 있어서 미국의 CSC의 「Notice」 및 ITT Dialcom 등의 전자사서함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도표 2 DNS가입자현황과 DACOM-NET 연결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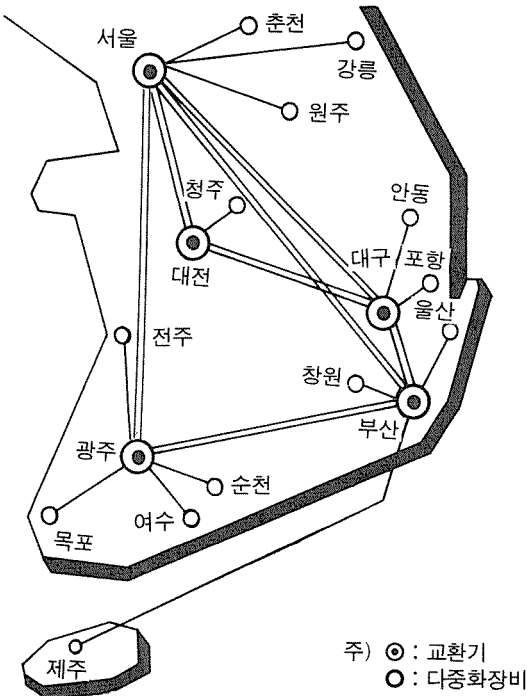
○加入者 現況

年度別	'83	'84	'85	'86.4	'86計劃
加入者數	80	181	443	552	1,200

○DACOM-NET 연결망도(國際)



○DACOM-NET 연결망도(國內)



그밖에도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이 있으나 여기서의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부터 이용자의 정보수요 패턴이 대체로 보아 다음과 같이 변천해간다는 것이다. 즉 처음에는 단순검색(메뉴 선택방식)을 즐기다가 다음 단계에는 심층검색(키워드 검색 및 검색데이터의 가공처리)을 요구하게 되고 3 단계에 이르러서는 직접 예약을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일상생활이 점차로 편안하게 됨에 따라서 4 단계에서는 돈도 지불하거나 수급을 하거나 나아가서는 배달을 하거나 하는 것까지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데이터 베이스도 이러한 수요의 변천을 미리 짐작해서 적절히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국내 데이터 베이스 산업을 한탄한다

해외의 데이터가 이렇게 일취월장해 나가는 데 반해서 국내의 데이터의 준비과정이 너무나 미약해서 정보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심지어는 국내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서도 해외를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 데이터 이용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는 않지만 정보이용자는 항상 편하게만 쓰는 습성이 있어서 당장에 정보 제공이 되는 쪽을 자연스럽게 선호하게 마련이다. 애국심을 발휘하여 국내자료를 활용하려고 해도 정리된 곳이 없어서 「정보찾기」에 온 정력을 기울이다가 결국은 「때늦은 정보」만 입수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활동에서 항상 정보경쟁에서 뒤져버린다. 이미 정보선진국은 데이터 베이스의 축적을 「정보 무기화」를 하려는 기미가 보인다. 완전히 해외의 정보에만 의존하는 추세를 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국내의 데이터 베이스 산업을 육성시키는 길밖에 없다.

국내의 데이터 베이스 축적이 앞으로는 외국에서 이용하게 만들어서 적어도 정보무역에 있어서도 현재의 100 : 0 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이라도 균형을 이루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면에서는 우리나라는 후진국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 베이스 산업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으

로 구분할 수 있다.

(1) 데이터 전송업(Data Carrier)

이 업종은 이미 한국데이터통신(주)의 데이터컴망으로 이미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며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준비는 끝난 셈이다.

(2) 데이터 분배업(Data Distributor)

컴퓨터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분배하는 업종을 말하는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은 있지만 이것을 업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아직도 없다.

(3) 데이터 제작업((Data Producer)

이것이 가장 문제이다. 기존의 모든 정보제작기관은 재래식 매체로만 정보를 생산하려는 습성이 짙어서 이 산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즉 기존의 모든 정보원이나 매체를 전산가독형으로 조직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강력한 분배업자가 있어서 다른 제작업자가 만드는 데이터를 분배하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4) 데이터 판매업(Agent)

국내외의 분배업자를 대신해서 데이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해서 이용하게 하는 업종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외국의 데이터를 판매하려는 기관이 새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10여개의 기관이 이미 추진하거나 하려고 하고 있다.

(5) 검색대행업자(Information Broker)

다양한 정보검색을 위하여서는 심도있는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보수요자가 전문 검색자에게 의뢰하여 검색하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새로운 업종으로 삼고 출발한 기업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대체로 검색의 경험을 축적시켜서 궁극에 가서는 컨설팅 사업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6) 기타(Others)

이상의 여러가지 업종에 정확히 구분되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보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기술 문헌의 원본을 구하여 준다던가 또는 심부름을 대신하여 준다던가 그리고 컨설팅과 같은 전문기관이라던가 하는 곳이 넓은 의미에서 데이터 베이스 업종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상 6 가지 업종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누

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단말기만 갖고 있으면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주문하고 예약하며 송금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이른바 정보화 사회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아직도 이것을 국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지 못하고 있다. 가뜰이나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산업마저 무기화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국가적인 서비스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다.

4. 맺음말

미국의 데이터 베이스 연간 총 매출이 약 4조 원, 유럽이 1조 5,000억 원 그리고 일본이 5,000억 원이라 한다. 이것이 1984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또한 이 분야 산업의 연간 신장률이 30~40%인 것으로 보아서 신장률면에서는 아직도 대단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액수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무하다. 2000년대에 가서는 데이터 베이스 산업이 선진국 수준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2조 5,000억 원 정도의 시장을 개척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전체 국민총생산의 1%정도인데 이쯤의 산업으로 발전하게 힘을 모으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면 한다. 이 정도의 시장이라면 컴퓨터나 통신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데이터 통신망의 확장, 데이터 베이스 및 부가가치 서비스의 확장, 뉴미디어의 과감한 도입, 일반생활인의 정보생산 및 이용습관의 개혁,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국민생활이 편리해지는 복지사회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강렬한 희망이다.

데이터 베이스 산업이란 다른 어떤 첨단기술 산업보다도 찬란하거나 각광을 받는 산업이 아니며 그늘에서 일해야 하는 정말로 귀찮은 잔손질이 많이 가는 산업이다. 그렇다고 오늘날까지 너무나 무심하게 지나온 과거를 한탄하기에 앞서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추진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한다.